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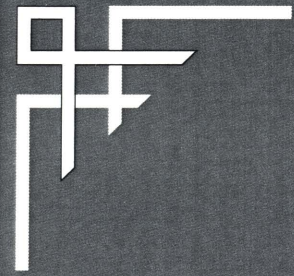
한인회보

'손에 손잡고 세대의 벽을 넘어서'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American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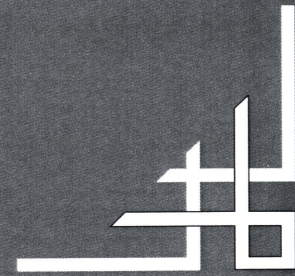


아리랑의 밤을 축하드리며,
2005년 새로운 모습으로 곧 인사 드리겠습니다

- 이식환 -

SHILLA
KOREAN JAPANESE RESTAURANT

2300 8th Ave. • Seattle, WA 98121 • tel 206 623 9996



Income Tax Return (개인, 회사)

김 & 김 C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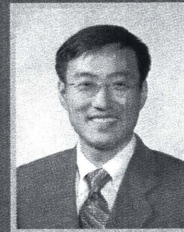
■ 김윤중, CPA

- 공인회계사, CPA, MBA
- 미주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워싱턴주 공인 회계사협회 정회원



■ 김홍중, CPA

- 공인회계사, CPA
- 미주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워싱턴주 공인 회계사협회 정회원



■ 김덕중, CPA

- 공인회계사, CPA
- 미주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워싱턴주 공인 회계사협회 정회원

- 개인 및 회사세금보고 (sales tax, payroll, income tax)
- 각종회사 설립 및 영업허가 (개인, 동업, 주식회사)
-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 상사 · 지사의 회계 및 감사
- 세 무(결세)상담, 경영상담
-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무상담
- 퇴직연금 상담 및 계획 • irs & 주정부 세무감사 피검대행
- 상속세 상담 • 투자상담

시 · 애 · 틀
TEL. (425)640-3435
FAX. (425)640-3343
23416 Hwy 99 Suite B
Edmonds, WA 98026

타 · 코 · 마
TEL. (253)984-9530
FAX. (253)984-9537
8718 South Tacoma Way, Suite D
Tacoma, WA 98499

향수

정 지용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 빛이 그리워
항부로 손 화살을 찾으러
풀섶 이슬에 향추름 휘적시던 곳,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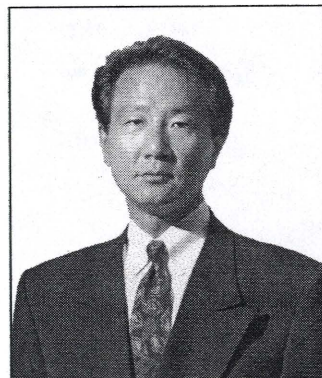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밀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블 것도 없는
사철 밭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하늘에는 성근 벌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아리랑 밤’은 새로운 시작의 서막



서영민 회장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안녕하십니까.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의 “아리랑의 밤” 연례행사는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애틀 한인회의 송년 끝마지 행사라고 대체로 보십니다. 다른 해석으로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동포 여러분들 및 동포사회 단체들과 시애틀 한인회와의 단합의 시무식이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한해의 “마지막”의 “작별”의 모임이 아니라 새로운 준비와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는 “시작”의 “안녕”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와같이 시애틀 한인회의 업무는 마지막이 없는, 늘 시작의 연속인것이라 하겠습니다.


어언 12달이란 시간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작도 못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한 둘이라 할지라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도력” 부족으로 시행착오와 수준미달의 업무처리도 많은것 같았습니다. “한인회”의 위상을 보존하진 못할지 언정 오히려 기대에 못미치는 실망의 누를 끼친것 같음이 성심껏 봉사하시는 시애틀 한인회 임원들과 이사님들, 전직 회장님들 및 임원님들, 동포사회 단체장 및 회원 여러분들과 동포 여러분들께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허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좌절이나 미완성의 아쉬움의 “2004년의 막 내림”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시 재도전의 시작인것입니다.

이 “경축”의 시애틀 한인회의 “2004 아리랑의 밤”을 시작으로 시애틀 한인회는 어제의 산교육과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더욱 돈독한 동포사회 세대간과 각 단체와의 융화, 단결, 그리고 주류사회 및 타 소수민족과의 유대를 맺으며 재무장된 각오와 질적 향상의 계획과 기획으로 맞이하는 2005년의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의 실속있는 업무시작을 담당하나 신중하게 펼쳐 나갈것입니다.

어제의 협조와 격려를 재삼 새로이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내일의 시작의 연속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평온하심을 기원하옵니다.



GARY LOCKE
Governor

STATE OF WASHINGTON
OFFICE OF THE GOVERNOR
P.O. Box 40002 • Olympia, Washington 98504-0002 • (360) 753-6780 • www.governor.wa.gov

Greetings from the Govern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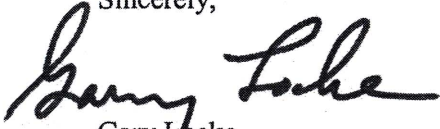
December 4, 2004

I am pleased to extend my warmest greetings to all of those attending Arirang Night, hosted by th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I am confident that you and your loved ones will greatly enjoy this evening of camaraderie, entertainment, and wonderful f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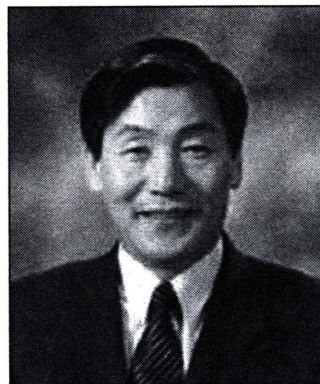
As governor of Washington, I believe that one of our state's greatest assets is the diversity of its people. Traditional celebrations such as this promote a deeper understanding of, and appreciation for, other cultures. In this, they enrich us all.

I commend th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for making this festival possible, and for bringing heightened recognition to the important contributions that Korean Americans have made, and continue to make, to society. I especially applaud their work to help young people develop to their full potential.

Please accept my best wishes for a joyful and memorable evening.

Sincerely,

Gary Locke
Governor

세대간의 간격을 메워가는 가교가 되길



김재국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의 3004년 회보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한해도 시애틀 한인회는 예년처럼 보다 나은 동포사회 건설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Seafair Parade 참가, Korean American의 정체성에 관한 학술대회, 광복절 경축행사등을 직접 주최하는 한편, Northwest Folklife 및 Festival Mini Seattle Worldcup 참가를 후원하는 등 동포사회의 위상제고와 단합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급변 한인회는 종전과 달리 지도부의 임기가 2년이며 그 인적 구성 또한 비교적 젊고 여성 포함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행사에서 모두들 느끼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소위 이민 1세와 2세의 간격을 좁히고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 고자 하는 현 한인회 임원진의 노력들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려는 의지와 노력에 대하여 더욱 큰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커뮤니티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구성원들의 무관심이라 합니다. 한인회 임원들은 보다 많은 동포 한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고민해야 하겠지만 한인사회도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워싱턴주 한인동포들은 이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존경받고 본구과의 유대관계 발전에도 계속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애틀 한인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계속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워싱턴주 동포 여러분 개개인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MARIA CANTWELL
WASHINGTON

717 HART SENATE OFFICE BUILDING
WASHINGTON, DC 20510-4705
(202) 224-3441
FAX: (202) 228-0514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DC 20510-4705

COMMITTEES: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INDIAN AFFAIRS
SMALL BUSINESS

December 4, 2004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Dear Friends and Members of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I am writing to congratulate you on another year of celebrating your organization. I believe that the goals of your organization are commendable, and I would like to extend my warmest greetings and wishes to your members for a successful event this evening.

I commend the efforts of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to organize and link Korean-American citizens of all generations. Your grassroots effort to bring members of the community together for various events, and to provide important and vital services to them is making a difference. The impact of your work is felt here in the great State of Washington.

I congratulate you on a memorable event, and another year of great service to our community. Thank you very much, and behalf of all the citizens of Washington, I wish you a wonderful evening and all the best.

Sincerely,

Maria Cantwell
United States Senator

PLEASE REPLY TO:

- U.S. FEDERAL COURTHOUSE
WEST 920 RIVERSIDE, SUITE 697
SPOKANE, WA 99201
(509) 353-2507
FAX: (509) 353-2547
- JACKSON FEDERAL BUILDING
915 2ND AVENUE, SUITE 3206
SEATTLE, WA 98174-1003
(206) 220-6406
TOLL FREE: 1-888-649-7328
FAX: (206) 220-6404
- MARSHALL HOUSE
1313 OFFICERS' ROW
FIRST FLOOR
VANCOUVER, WA 98661
(360) 686-7838
FAX: (360) 696-7844
- 625 JADWIN AVENUE
G-58-A
RICHLAND, WA 99352
(509) 946-8106
FAX: (509) 946-9377
- 2930 WETMORE AVENUE
SUITE 98
EVERETT, WA 98201
(425) 303-0114
FAX: (425) 303-8361
- 950 PACIFIC AVENUE
SUITE 815
TACOMA, WA 98402
(253) 572-2281
FAX: (253) 572-5679

Web: <http://cantwell.senate.gov>
PRINTED ON RECYCLED PAPER



Washington State Senate

Senator Paull H. Shin, Ph.D
21st Legislative District

404 John A. Cherberg Building
PO Box 40421
Olympia, WA 98504-0421
Olympia Ph: (360) 786-7640
FAX: (360) 786-7450

19707 64th Avenue West, Suite 207
Lynnwood, WA 98036-5958
District Ph: (425) 673-1393
FAX: (425) 774-6932
e-mail: shin_pa@leg.wa.gov

November 18, 2004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200 S. Angelo Street
Seattle, WA 98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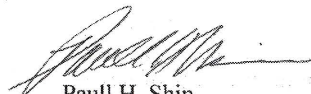
Dear Friends,

I wish to congratulate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on its annual Arirang Banquet to be held on December 4, 2004. This banquet recognizes the important contributions that Korean Americans have made in the past year. Korean Americans are an integral part of the community at large, but we maintain our distinct cultural heritage. I'm sorry that I cannot attend in person, as I have previous commitment to speak to an adoptee group in Toronto, Canada. Though I will not be with you physically, my thoughts and spirit will be with you!

It is important for our community to celebrate the New Year and our work together as a community. The work done by the association this year has been a tremendous help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the greater population of Washingto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a strong and vibrant one, sewn into the tapestry that is American life, but we cannot rest on our laurels, we must continue our good work.

I wish to congratulate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nd its leadership for your indefatigable service to the cause of Korean Americans and our common future. The world we inhabit today belongs to our children, grandchildren, and future generations. If we provide them a way to retain their distinct culture while also developing their love and allegiance to their adopted homeland, we have succeeded in our goals.

Sincerely,


Paull H. Shin
Washington State Senator
21st Legislative District

시애틀 한인회 회보를 위하여

제2의 고향과 같은 워싱턴주 시애틀의 한인회가 발행하는 회보에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산과 물과 인공이 가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시애틀은 10년전인 1994년 제가 워싱턴 대학 교환교수로 있었을 때나 다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방문한 2004년이나 다를 것이 없이 항상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물은 무상하여 10년 전에 비하면 동포의 수도 증가하였고 그리웠던 분은 보이지 않고 새로이 활동하시는 분을 여러분 만나게 되어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동포사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변한 것에 놀랐습니다.

지난 1년은 참으로 다사다난 하였던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은 남북의 긴박한 대치상황에서도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중진국에 서는 선두지위를 유지하고 무엇보다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조선산업등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고 많은 기업인이 중구으로 진출하여 토대를 마련하여 그 수가 20만에 달하였습니다. 고구려 역사에 있어서 중구과 한구는 첨예한 대립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가까운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일본과는 FTA 협정을 눈앞에 두고 민감한 대립을 보이고 있으나 한편 동남아시아와 중구를 휩쓴 "한류"가 일본에 상륙하여 "윤사마"를 보러오는 일본인이 서울 명동과 경기도 용평의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재미 동포사회도 본구에 뒤질세라 동포기업이 융성하여 이미 재벌이 된 사람이 급증하여 가고 1.5세와 2세들의 사회 상승률 또한 현저하여 두각을 나타내는 차세대들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2기를 맞이하는 내년은 한국에서 순탄치 않은 해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편 위기는 기회라고 낙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운 파도를 맞이하는 한국과 동포사회는 시련이 기회가 되는 새로운 한해가 되어 또 하나의 기적을 낳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동포 여러분 가정마다 만복하시고 동포분들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한인회보 발간에 즈음하여

최 병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2004년을 마감하고 지난 일년간 한인회 활동상황과 업적을 여과없이 시애틀 지역 동포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회보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전언을 듣고 회보 발간은 인력과 재원의 확보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회보 발간이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 다가왔습니다. 현재 미주내 각 지역 한인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점은 안정 재원이 없는 조악한 경제 환경속에서 회장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한인회의 발전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간난과 신고를 극복하며 한인회를 기필코 민족옹비의 초석으로 발판을 마련하고 성숙한 성년 한인회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서 영민 회장님의 열의와 각오는 타지역 한인회에 비해 실로 귀감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희생적인 봉사정신에 최상의 경의를 드립니다.

본인이 작년 7월 1일 제 20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소망한 것은 적은 단위의 한인회에서 대도시 한인회에 이르기까지 안으로는 친화와 상호부조의 정신을 함양하여 일체감으로 형성되는 내실있는 조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밖으로는 우리 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한구 전래의 속담을 들어 흠어져 있는 우리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 다른 소수민족 집단과의 경쟁이나 유관단체와의 관계발전을 통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영원한 번영과 이상을 달성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서 영민 회장님과 손동학 이사장님을 위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신 한인회 임원, 이사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2004년도에 여러분이 이룩하신 업적이 그 지역 이민사에 찬연히 기록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인회보 발간을 계기로 2004년도가 화해와 단합의 기초를 다진 원년이 될 것을 바라며 한인회보 발간을 재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ing County
Ron Sims
 King County Executive

November 2004

Dear Fri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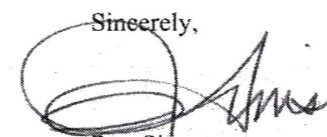
It is with great pleasure that I extend my warmest greetings to all of you attending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s Arirang Night dinner. As you come together to celebrate the unity of generations of Korean Americans, I join you in honoring the commitment, vision and leadership of your members.

The Korean community and its many fine organizations have a long history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and culture of this region. Throughout its rich history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has continuously worked to enrich the lives of Korean Americans. In addition to sponsoring free legal and medical seminars, the association's involvement in Youth Talks between first and second generation Koreans and a variety of other community activities are making a lasting and positive impact on the entire community.

Dedicated to serving the Korean community in our region,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inspires awareness and preservation of Korean culture, pride and heritage for future generations. I commend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for its dedication to bridging the gap between generations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growth and development. We are in deed very fortunate to have such a wonderful organization working in our region.

As King County Executive, I would like to again congratulate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for its commitment to serving the community. Best wishes for an enjoyable celebration and continued success in the years ahead!

Sincerely,



Ron Sims
 King County Executive



Aaron Reardon
County Executive

(425) 388-3460
FAX (425) 388-3434

November 23, 2004

M/S #407
3000 Rockefeller Avenue
Everett, WA 98201-4046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rirang Night Dinner
December 4, 2004**

On behalf of the more than 620,000 residents of Snohomish County, I am honored to extend my best wishes to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s you celebrate your **Arirang Night Dinner**.

The strength of Snohomish County truly can be likened to a beautiful, colorful quilt: The warp of the fabric is the mountains, water and stunning environment that mark our precious corner of the world. The weft is woven from a rainbow of strands, each hue representing a different culture or heritage cherished by the diversity of our residents. Clearly, the Snohomish County quilt would not be as precious or as strong without the color and strength of its Korean community. No matter which generation you are a part of, you can be proud of the strong and vigorous community that you enjoy and of your many contributions in this country.

As you celebrate your **Arirang Night Dinner**, best wishes to you all! May you, your community and your rich cultural contributions to this land continue to grow and prosper in the years ahead.

With sincerest regards,


Aaron Reardon
Snohomish County Executive



City of Seattle • Office of the Mayor

GREETINGS

December 4, 2004

Greet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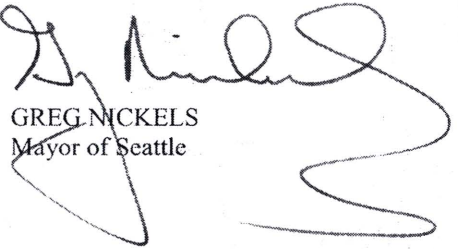
As Mayor of Seattle, it is my great pleasure to welcome you to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s annual dinner.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has served as a valuable resource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for many years. I commend this outstanding organization for uplifting Korean Americans in our city through programs such as Youth Talks and free legal and medical seminars.

This dinner is a wonderful way to acknowledge the hard work of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nd the outstanding leaders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onight's celebration also highlights the significant contributions Korean Americans have made to the rich mosaic of diverse cultures and traditions in Seattle.

Please accept my best wishes for a very successful dinner.

Sincerely,


GREG NICKELS
Mayor of Seattle

한인사회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김종길

본인이 경영하는 모텔에 대한 정부의 토지 수용권(eminent domain) 발동으로 힘들었던 시간이 벌써 일년여가 되고 보니 새삼 세월 빠름을 절감합니다. 아시다시피 스노호미시 카운티 당구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토지 수용권을 이용해 모텔의 일방적 매매를 강요했던 일은 당구의 공권력 남용에 따른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사례로 한인사회는 물론 미 주류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처음 에버렛 헤럴드지에 조그맣게 실렸던 기사 일과 만과 번져 Komo TV와 KIRO 방송의 토크쇼 주제로 까지 이슈화 되어 한구일보 중앙일보 시애틀 타임즈 등 언론매체의 관심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방송을 들은 장태수 시의원의 주선으로 변호사인 서영민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로 한인회에서 대책회의가 열렸으며 신호범 주상원의원께서도 사건해결에 적극 동참하셨습니다.

한편 당구의 불평 부당한 잘못된 처사에 끝까지 대응코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나름으로 법적 소송에 대비했던 본인으로서 무엇보다도 한인사회 차원에서 강제매입 저지를 위해 여론을 이 추진하여 도와주니 불운 속에서도 큰 힘이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당구에서 무리수를 인정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던 일이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수용권 발동을 취소 철회한다고 통고하는 결과가 도출 되었습니다.

회사 주재원으로 미구에 와 그 연관업에만 오랫동안 관련한 관계로 교포들이 많이 종사하는 모텔을 인수하고도 이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인은 교포사회를 접촉할 기회도 필요성도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터져 고통을 느끼면서도 한인사회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뜻밖에 한인들의 진정어린 격려와 도움에 사건이 해결되고 보니 한인 커뮤니티의 결집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교훈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이 종결된 후 확인해 보니 당구에서 한구 언론의 보도내용까지 영문으로 번역해서 참고하고 있었음을 알고 한인 사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당구의 토지 수용권 발동 자체가 전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개개인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모텔업의 채산성은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전과 마찬가지로 묵묵히 감내할 것이며 본 모텔도 덕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일 돌이켜 보니... 모든 인간사기 나만 잘하고 조심한다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뒤에서 갑자기 부닥쳐 오는 자동차 사고 따위는 속수무책 당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는 우리 익히 들은 옛말이 결국 소수민족인 우리 한인들에게 크나 큰 명제로 상기되어 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인회의 무궁한 발전과 교포분들의 행복과 건투를 기원하며 열성적으로 도와주신 한인회와 교포분들께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www.myfourseason.com

사계절 Four Seasons

최고의 맛, 저렴한 가격 푸짐한 양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사계절 최고의 바베큐 테이블 준비완료

각종 주류 개세 즉석냉면

Sushi & 사시미 Lunch 18가지\$5.95
 밀레니움 정식 ...\$29.95
 냉면정식(갈비+냉면) \$11.95

단체손님 30명 이상 캐더링 하실 경우 장소제공 장소: Holiday Inn Express (14115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 206 • 361 • 7478
 15740 Aurora Ave. N Shoreline, WA 98133

7 Days Open
 11:00am~2:00am
 Sun 1:00pm~2:00am

식당 유통문화를 창조하는 **A-1 Restaurant Supply, Inc**
 RESTAURANT EQUIPMENT & SUPPLY

A-1 식당장비

질 좋은 제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한국산 전골 냄비류 및 각종 주방용품 다량 입하!

식당그릇 장비수입 및 도매 (A-1 Restaurant Equipment & Supply)
 TEL: 253)815-팔구사구 / 8950 / 8951 FAX: 253)815-8948 1610 S. 344th St. Federal Way, WA 98003
 오시는길: I-5 Exit 142B에서 나오자마자 첫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신 후 두번째 길 우측 캐쉬앤캐리 입구에 위치에 있습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회의 숨은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회장	서영민	편집부장	함명호
명예회장	홍승주		문화부장	도호중
수석부회장	손기남		기획부장	김나오미
부회장	윤봉열		청년부장	안동준
사무총장	방석문		체육부장	황준영
사무국장	손동준		사회복지부장	한윤주
사무장	김진희		교육부장	이윤경
간사	조수현		이사장	손동학
재무부장	강승혜		부이사장	임영숙
섭외부장	구현우		감사	김홍중회계사 박준우
홍보부장	오승근		법률고문	유수아 황병식 변호사

감사합니다

'아리랑의 밤' 행사에 협찬해 주신 분들(무순)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오승근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오계희	삼호 USA
재외동포재단	장태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서북미 지부 회장	마이라이프 건강식품
강동연외 회원일동	KAPS (한인 전문인 협회)
윤봉열	KCCC (한인 생활상담소)
김기현	KSA (워싱턴 주립대학교 한인학생회)
국제종합부동산 노대현	KSU (워싱턴 주립대학교 한국학생회)
구현우	워싱턴주 대한부인회 (회장 홍피아)
미락식당	워싱턴주 상공회의소 (회장 김승애)
박건홍	워싱턴주 축구협회 (회장 장현식)
교차로	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 협회 (회장 최종기)

역대 회장 및 이사장 명단

대	년도	회장	이사장	대	년도	회장	이사장
1대	1968	이 창희		20대	1987	윤 광남	고 봉식
2대	1969	이 선복		21대	1988	최 주찬	백 응기
3대	1970	전 계상		22대	1989	한 원섭	김 형달
4대	1971	이 현기		23대	1990	장 동식	곽 종세
5대	1972	이 현기		24대	1990	곽 종세	이 점태
6대	1973	한 만섭	이 찬희	25대	1991	한 상국	백 인홍
7대	1974	구 범희	서 두수	26대	1992	이 광술	박 영민
8대	1975	신 호범	전 계상	27대	1993	윤 상인	김 형달
9대	1976	김 성길	이 현기	28대	1994	김 석민	황 동규
10대	1977	김 형진	신 호범	29대	1995	강 희열	장 수강
11대	1978	김 형진	오 준걸	30대	1996	민 학균	나 승인
12대	1979	조 성욱	김 현중	31대	1997	장 수강	온 상용
13대	1980	정 철식	엄 명보	32대	1998	김 재영	최 창만
14대	1981	강 동언	김 정부	33대	1999	강 석동	유 철웅
15대	1982	엄 명보	서 광신	34대	2000	유 철웅	송 태호
16대	1983	신 호범	이 동입	35대	2001	이 영조	정 재원
17대	1984	오 계희	엄 도승	36대	2002	김 준배	함 재명
18대	1985	오 준걸	한 만섭	37대	2003	홍 승주	임 광희
19대	1986	박 태호	최 경수	38대	04-05	서 영민	손 동학

2004년 활동상황및 업무보고

1월

- 3일(토) 기독교 연합회 조찬기도회 참석 (에버렛 한인교회)
- 4일(월) 강석동 전회장 대통령 표창식 참석 (총영사관)
- 14일(수) 신구회장 업무 인수인계
2004년 제1차 임원회 개최
- 15일(목) 각 언론사 기자초청 간담회 개최 (Everett Inn)
'UW 한국학 보존 위원회' 지원차 주지사, 주 상원의원 방문
- 17일(토) 서북미 한인 연합회 이사회및 임시총회 참석 (본회관)
- 22일(목) 제2차 임원회 개최 (이 취임식 준비)
- 23일(금) 2004년도 회장단 이사장단 이취임식 거행
- 24일(토) 2004년 타코마 한인회장 취임식및 경로잔치 참석
- 27일(화) 국악예술행사 (판소리) 명찬 정유진씨의 한국 MBC TV 제작침,
각 언론사 초청 만찬및 간담회 개최
- 29일(목) 국악 예술행사 (판소리) 개최 (UW 음대 강당)
- 31일(토) 충청 향우회 회장 취임식 참석

2월

- 6일 (금) 시애틀 통합 노인회 대보름 경로잔치 참석
- 13일(금) 2004년도 제1차 단체장 간담회 개최
- 17일(화) API/Asian Pacific Islander 축제준비 모임
- 19일(목) 서북미 기독교 실업인회 회장 취임식 참석
- 21일(토) 상공회의소 회장 이사장 취임식 참석
- 23일(월) 시애틀 기독교 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 25일(수) 시애틀 한친회 회의참석
- 26일(목) 제3회 임원회의 개최
- 27일(금) 서북미 한인회 연합회 임시 이사회 참석 (타코마)

3월

- 1일(월) 제 85주년 3.1절 기념식 거행
- 2일(화) 제4회 임원회 개최
- 5일(금) 한인회 미주총연 임시총회 참석 (Red Lion Hotel)
- 6일(토)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서북미 협회 정기총회 참석
- 8일(월) 제5회 임원회 개최 (신라)
- 11일(목) 2004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 개최
- 15일(월) 서북미 한인연합회 회장단및 총영사 부총영사 합석 석찬 간담회 참석
- 21일(일) 생활상담소 기금모금 행사 참석 (쉐라톤 호텔)
- 23일(화) 축구협회 후원회 결성 회의참석 (총영사관)
- 30일(화) 제6회 임원회 개최

2004년 활동상황및 업무보고

4월

- 3일(토) 서북미 교육협회 학력 경시대회 참석및 후원
- 8일(목) 상공회의소 기금 모금행사및 변호사 협회 모임참석
- 9일(금) 미니월드컵 후원준비 모임(각단체장)
- 12일(월) 제7회 임원회 개최 (손기남 부회장택)
- 15일(목) 미니월드컵 후원준비 모임
- 16일(금) 미스코리아 워싱턴주 선발대회 참석
- 20일(화) 제8회 임원회 개최
- 22일(목) 미니월드컵 후원 준비모임
- 26일(월) 제9회 임원회 개최
- 26일-30일 각시장, 군수, 주지사 방문
(킹카운티, 린우드, 에드몬즈, 쇼라인, 머킬티오, 스노호미시 카운티)

5월

- 1일(토) 서북미 학생 경시대회 시상식 시상참석
- 3일(월) 시애틀 벨뷰 통합 한인학교 기금모금 행사 참석
- 4일(화) 아시아 퍼시픽 연합대회 준비모임 참석
- 5일(수) 웨더럴 웨이 시장 경찰국장 방문
- 6일(목) 미니 월드컵 후원 준비 회의 개최
KAPS 모임 참석
- 7일(금) 미주총연 서북미연합회 회의 참석
장한 어머니 봉사상 시상식 참석 (중앙일보)
- 14일(금) 충청도 보령시 시장 환영 만찬 참석
- 15일(토) 한인회 회장배 축구대회 개최
뿌리문화상 시상식 참석 (아태문화센터)
- 23일(일) UW학생회 노래 장기 자랑대회 참석및 후원
- 29일(토) N.W Folklife festival 참가
APACS 참석 (타코마돔)
- 31일(월) 세계 한인회장 대회 참석 (서울)

6월

- 1일(화) 세계 한인회장 대회 참석
재외 동포재단 이사장 개별 간담회
- 2일(수) 세계 한인회장대회 참석
- 4일(금) KAPS 연례만찬 참석
- 5일(토) "World Cup Seattle 2004 Team Korea" 참석
- 6일(일) 강현욱 전북지사 환영만찬회 참석(총영사관저)
- 8일(화) 대전 시향 공연 참석(Benaroya Hall)
전북도 지사 주최 송별 만찬회 참석
- 10일(목) 여성 부동산협회 Silent Auction 참석
- 12일(토) 서북미 미술인 협회 사생대회 후원
- 13일(일) 셋별문화원 공연후원

언론에 비친 한인회 활동상

중앙일보 2004년 1월 27일(화요일) (3) 서북미 종합 Northwest

젊은패기의 의욕적출범 개시

시애틀한인회 제38회 회장, 이사장단 이 취임식
한인회관이전증 각중사업계획 발표

서북미로 2004. 1. 30 (수) The Korea Post

시애틀 한인회 서영민호 본격 출발

"한인 2세들의 참여 적극 유도하겠다"

중앙일보 3. 3. (수) 서북미 종합 Northwest

만세 삼창으로 3.1정신 상기

동림선언문 낭독, 삼일절노래 제창

서북미 1/27/2004 한국

"한인사회 창구 단일화 추진"

신임 서영민 시애틀 한인회장 이 취임식서 강조

Saturday April 24, 2004 인독일보

락 지사 등 주요인사 순방

시영민 시애틀 한인회장, 인우드서 페티셔너까지

시애틀 한인회 회장 서영민

“정기적으로 한인사회 환류는 의의”

시애틀 한인회 회장 서영민이 23일 제1회 한인회관에서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중앙 2/18 (목)야

한인회장 일행 킹 카운티 방문

서영민 회장, 란 심스 군수와 면담

시애틀 종합 North (2) 2004년 10월 2일 (목요일)

"임금문제 발생하면 고용주 불리"

한인회 주최 무료 법률 세미나 개최

중앙 2004년 8월 31일(화요일) 서북미 종합 Northwest

한인2세 개방적 이성관 주목

시애틀 한인회 주최 2004 학술토론회

중앙 8. 18. (목)야

시애틀 한인회장배 축구대회

에버우드 축구회 영예의 우승

중앙 9. 17. (수)야

94개월 중 91번째

시애틀 한인회 주최 2004 학술토론회

중앙 9. 18. (목)야

시애틀 한인회장배 축구대회

에버우드 축구회 영예의 우승

2004년도 시애틀 한인회 신임회장, 이사장단 취임식이 열려 의욕적인 출발의 뜻을 밝혔다. 지난 1월 23일 오후 6시 30분 기애를 한인회관에서 열린 신년도회 및 회장단 취임식이 열려 1백여명 가까운 각계 인사들이 참석, 새회장단의 출범을 축하했다. 순기남 수석 부회장의 사회로 서영민 신임회장은 한인들을 위한 봉사에 전념하겠다는 선서 사항을 이어서 한인사회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이 행할 것을 다짐했다. 1.5세 인원지 등을 목표로 한 가족관대를 핵심, 이민자 인권유용으로 한 가족관대를 핵심, 이사장, 이사회, 위원회 이사장은 '회장, 이사장'은 원과 버...

시애틀한인회 제38대 회장, 이사장 취임



젊은 패기의 의욕적 출범개시

과의 관계'라며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거리에 참석한 김재국 총연사는 2세들의 정체성, 가정폭력 등 이민사회 각종 문제점을 염거한 후 동포들의 정지력 강화와 미래지향과 생산적 분위기 연신을 당부했다.

(1월 27일자 중앙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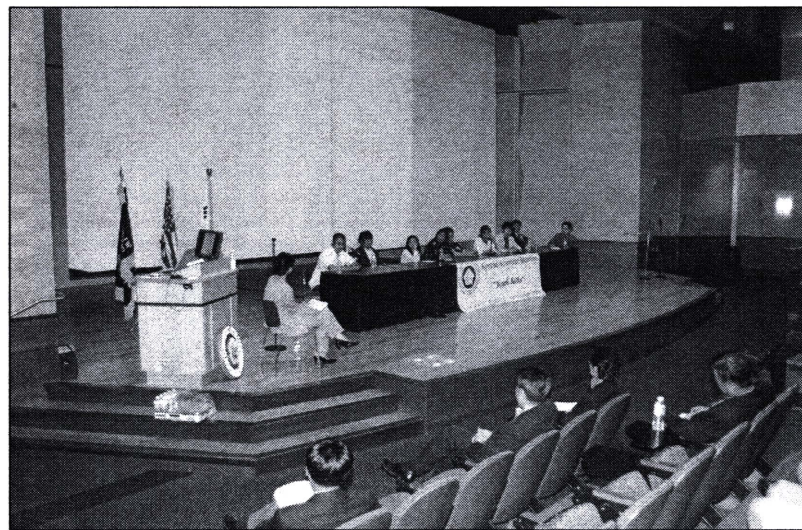


오로라 음식물
Aurora Oriental Food & Gift
206) 362-5575
15202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가교

한인2세 개방적 이성관 주목 시애틀 한인회 주최 2004 학술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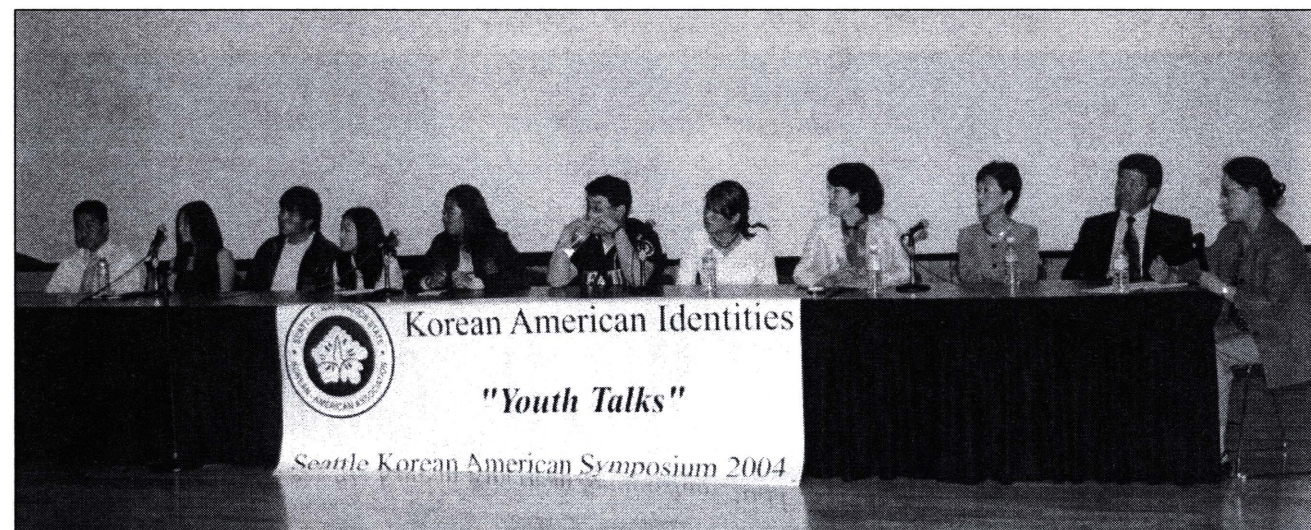
‘이성 문제보다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더 많아요’

‘체성’의 3부분으로 나뉘어져 고등학생, 대학생, 부모를 패널로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진행-

‘누구를 사귀든지 부모가 관여할수 없습니다’

‘매는 엄마가 들지만 실제로는 아빠가 더 무섭죠’

시애틀 한인회 주최 2004 학술토론회 ‘Youth Talks’가 지난 28일 UW 케인홀에서 열렸다. 작년에 이어 두번 째로 열린 이번 학술 토론회는 크게 이성, 가정, 정



를 강조했다면 이번 대회는 현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위주로 구성된 구체적인 대회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대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대회는 1세 부모들의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통역인들을 각 섹션마다 배치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8월 31일자)

됐으며 관중석에서도 참석자들이 직접 손을 들고 묻고 답하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략)

대회를 준비한 시애틀 한인회 서영민 회장은 ‘1.5세와 2세의 참여에 비해 부모님들의 숫자가 적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학술 대회 준비위원장인 임 영숙 한인회 부 이사장은 ‘2003년 대회가 학문적이고 역사적인 의미-



워싱턴주 한의사 협회

침, 뜸, 한약 취급

WA주 한의사 협회는 아래 공인한의원들을 추천합니다.

박요섭 한의원	비전 한의원	성신 한의원	서울 한의원	우리 한의원	인수당 한의원	재중 한의원
<p>박요섭 한의원 원장 박요섭 Federal Way Clinic (253)815-9191 (206)815-9191 Edmonds Clinic (425)787-9191 (425)778-8883</p>	<p>비전한의원 원장 김정환 6205 200th St. SW Lynnwood, WA 98036 (425)775-5052</p>	<p>성신한의원 원장 안병엽 18514 Hwy 99 Suite D, Lynnwood, WA 98037 (425)774-1535</p>	<p>서울한의원 원장 이낙준 8718 S. Tacoma Way Suite #2 Tacoma, WA 98499 (253)584-8649 (24hr)</p>	<p>우리한의원 원장 이승호 545 B 156th Ave. SE, Bellevue, WA 98007 (명부 필드서로 뒤, 온 전면적 시합장) (425)747-2050 www.pain-acupuncture.com</p>	<p>인수당한의원 원장 최기진 9122 S. Tacoma Way #110 Lakewood, WA 98499 (253)588-4800</p>	<p>재중한의원 원장 백종갑 8904 S. Tacoma Way #6 Lakewood, WA 98499 (253)983-1943</p>

The Association of Korean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of Washington State

한번 조국은 영원한 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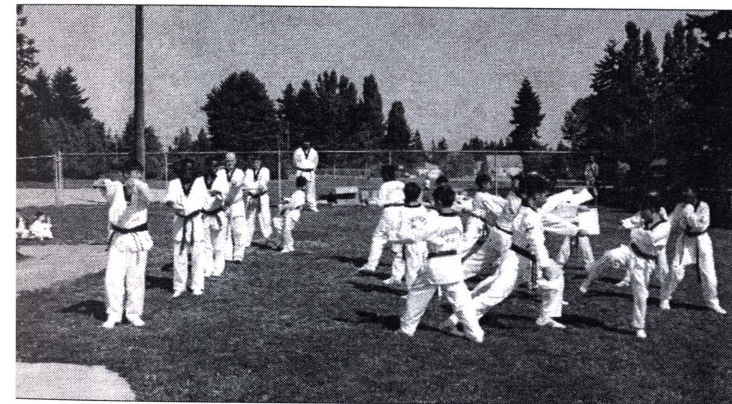


광복 제 59주년 기념행사 축제 분위기속 갖가지 볼거리 제공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광복절 노래를 부른 뒤 홍 승주 명예회장의 선창으로 대한민국 광복 59주년을 기념하는 만세 삼창을 외치기도 했다.

특히 시애틀 한인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미주 순회공연중에 있는 수원 중앙침례교회(담임 김장환 목사)의 호산나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연주, 부채춤 공연을 마련했으며 썸치언 태권도장 (관장 황준영)의 태권도 시범을 통해 합창단원들에게 민박을 제공하고 있는 호스트 가정 등 미구인에게도 좋은 볼거리를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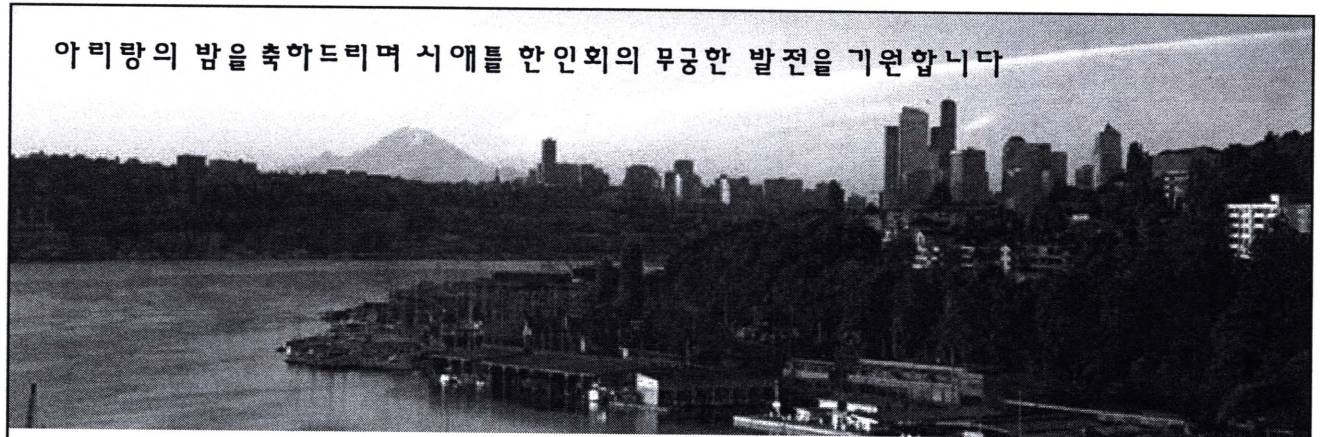
(8월 20일자 코리안)



시애틀 한인회(회장 서영민)가 준비한 올해 광복절 기념행사는 매년 되풀이되던

기념식 식순에 의지하던 것에서 탈피, 갖가지 공연과 바베큐 파티가 어우러지는 진정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300여 한인과 미 주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후 2시 쇼어라인 리치몬드 하이랜드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서 영민 회장은 '동포사회에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자세' 라며 참여와 지원과 협조를 부탁하는 기념사와 더불어 '소풍온 기분으로 오늘의 축제를 만끽하자' 고 덧붙였다.

(중략)



아리랑의 밤을 축하드리며 시애틀 한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탐리 치과 Tom Lee D.D.S.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한국 전통문화 진수 선보여

포크라이프 페스티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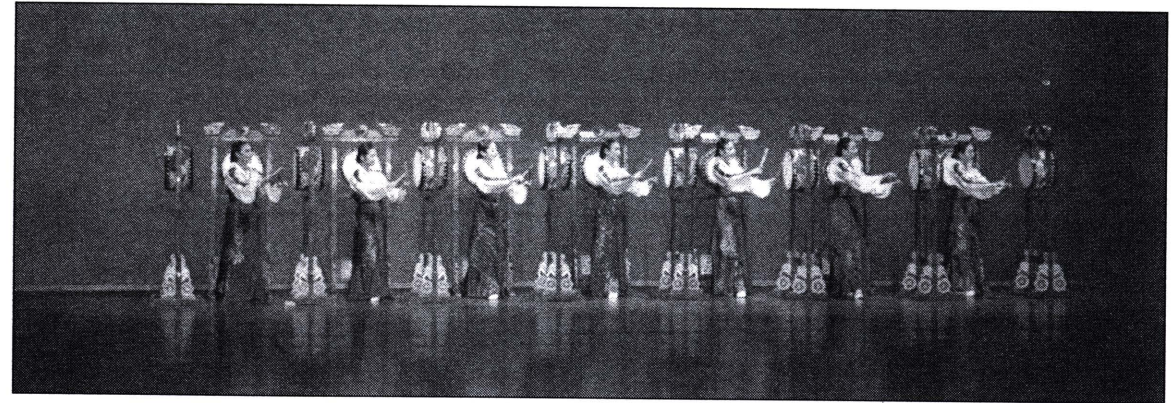
다민족 축제인 서북미 포크라이프 페스티벌에서 서북미 한국예술원 (원장 에스더 김)이 주최하고 시애틀 한인회가 후원한 '한국의 미 한마당' 잔치가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샬럿마틴 극장에서 열려 서북미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들에게 한국의 전통예술의 진수를 선보였다.

KAPS의 권지연 회장과 한인 생활상담소 이-

진경 소장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연은 황준영 태권도단의 시범으로 시작돼 판소리 '홍보가' '단가' '거문고 산조' 등의 순서로 1부 순서가 진행됐으며 1부 마지막 순서인 '왕조의 꿈' 이라는 퍼포먼스에서 절정을 이뤘다.

(중략)

이날 공연은 1천장의 공연책자가 동이 날 정-



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해 해가 갈수록 포크라이프 축제 기간동안 열리는 한국의 전통공연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입증했다.

공연이 끝나고 에스더 김씨는 '이번 공연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아낌없-

는 지원을 보내준 서영민 회장이하 시애틀 한인회 임원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는 말을 잊지 않았다.

(6월 11일자 코리아포스트)



앤드류 김 틀니전문 치과 Impressions Denture Center

각종 보험 및 메디케이드(DSHS), 무보험 할인 가능



- 무료 구강검사 및 상담 (Free Oral Exam & Consultation)
- 전체 틀니 (full Dentures)
- 부분 틀니 (Partial Dentures)
- 틀니 교정(Relines)
- 각종 틀니 수리 (Repairs)

예약 전화 425-672-1400 • 23416 Hwy99, Suite D • Edmond, WA 98026

Office Hour: Mon-Fri 9am-6pm, Sat 9am-3pm

한민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펼쳐



올 시페어 퍼레이드 흥겨운 농악, 태권무에 갈채

보안상 이유로 축소 개최된 올해 시페어 퍼레이드에 태권도와 한구전통 풍물놀이로 참가한 한인팀에게 밤 늦게까지 축제를 즐기고 있던 많은 주류사회 시민들이 갈채와 환호를 보냈다. 시애틀 한인회는 예년과 달리 주최측으로부터 참가인원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셋밭 문화원의 공연단 30명, 머길티오 참피언 태-

권도장 수련생 26명 및 한인회 임원 10명등만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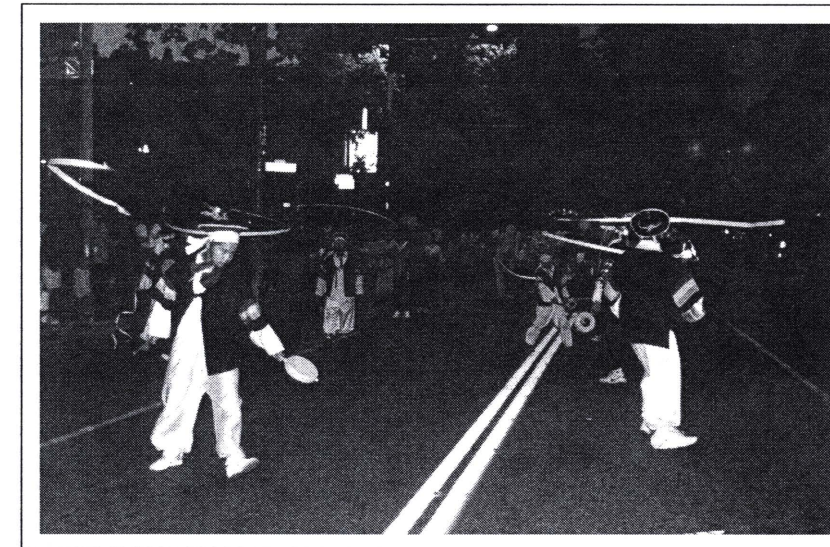
(중략)

시애틀 센터를 출발해 시혹스구장까지 이어지는 총 2.6마일의 행진을 지켜보던 한인들을 포함한 많은 주류사회 시민들은 우렁찬 구령으로 각종 발차기 묘기와 태권무를 선보인 한인

팀에게 엄지 손가락을 치키며 환호를 보냈다.

이날 한인회 임원들은 기다리는 동안 내년 행사에 보다 눈길을 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었으며 시페어외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8월 3일자 한구일보)



FREE PICK UP & DELIVERY

CDS

CASCADE DESIGN SERVICES

Phone 206) 372-6777 • Fax 206) 542-5408 • Email : mtdaniel@comcast.net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우리의 권익은 스스로 지킨다

한인회 주최 무료 법률세미나 개최

지난 목요일노스 시애틀 할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호텔에서 워싱턴주 한인회 주관으로 무료 법률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노동법 전문 멜빈 강 변호사, 주 노동부 관수 힌클 씨, 유수아 변호사, 나오미 김 변호사등이 패널로 참석해 각 분야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영민 변호사는 통역과 함께 이민법과 형사법에 대한 설명을 했다. 한인 3세로 지난 26년 동안 노동법 한 분야에서 일해온 멜빈 강 변호사는 '종업원의 하루 10분에 해당하는 급여문제가 10년 동안 지속되었다면 공용주는 10년치의 10분에 해당하는 비용과 벌금, 이자,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며 법적인 문제가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발생하면 금액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나오미 김 변호사는 유언 및 상속법에 대한 자-

료를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배포, 관련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이민 형사법을 맡은 한인회 회장 서영민 변호사는 '9.11 테러 이후 이민법은 점점 힘들어지고 강화되고 있다' 며 '1년형 이상을 받은 범죄와 연루될 경우 추방대상에 해당되며 나라에서 규정한 비도덕적 범죄들도 대부분 추방대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민권을 획득하고 출구전 범죄사실과 증명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한다' 고 강조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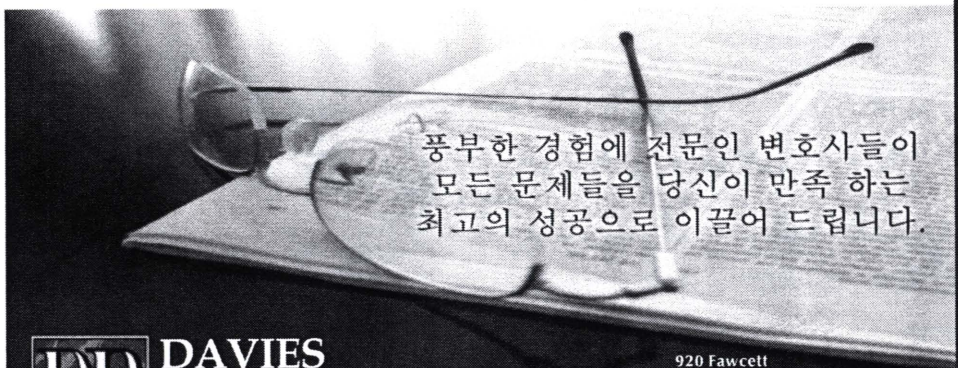
서영민 회장은 '미구내의 전반적인 경제부진과 연속적인 이민법 강화조치로 한인사회의 법률에 대한 질문들이 근간에 부쩍 늘어 한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싶어 관련법 무료 법률세미나를 개최했다' 며 10월 중순께 웨더럴 웨이에서도 2차 법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월 2일자 중앙일보)



Naomi S. Kim
Attorney at Law
nkim@dpearson.com

신체 상해, 상법, 유산상속법, 이민법



풍부한 경험에 전문인 변호사들이 모든 문제들을 당신이 만족하는 최고의 성공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DAVIES
PEARSON, P.C.
ATTORNEYS AT LAW

Your legal partner. Today. Tomorrow.

920 Fawcett
Tacoma, WA 98402
253-620-1500 or
800-439-1112
www.dpearson.com
A FULL SERVICE FIRM

전문성을 갖춘 정직한 사람들...

데이빗 김 부동산



David Kim John Chun

개스 스테이션
쇼핑센터
모텔전문



David Kim (206)235-3651 (삼백육십오일) John Chun (206)915-6570

Tel: 425.771.4081 · Fax: 425.771.4091 · 22727 Hwy 99 Suite #209 Edmonds, WA 98026

편안함과 안락함을 저희 베스트 웨스턴에서 드립니다.

Best Western Alderwood



THE WORLD'S LARGEST
HOTEL CHAIN®

- 시애틀의 북쪽 15분 거리에 위치한 린우드 I-5와 I-405 교차점
- 142개의 넓고 깨끗한 객실
- 워싱턴주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얼더우드에서 불과 2 블록거리
- 다양한 메뉴의 무료 아침 식사 제공
- 85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회의실
- 무료초고속 인터넷 사용가능
- 다채널 케이블 TV
- 전화 음성 녹음 서비스
- 금연 객실 선택 가능
- 한국어/알어 서비스 가능

예약 및 문의: 425-775-7600

19332 36th Ave W. · Lynwood, WA 98036



주류사회와 교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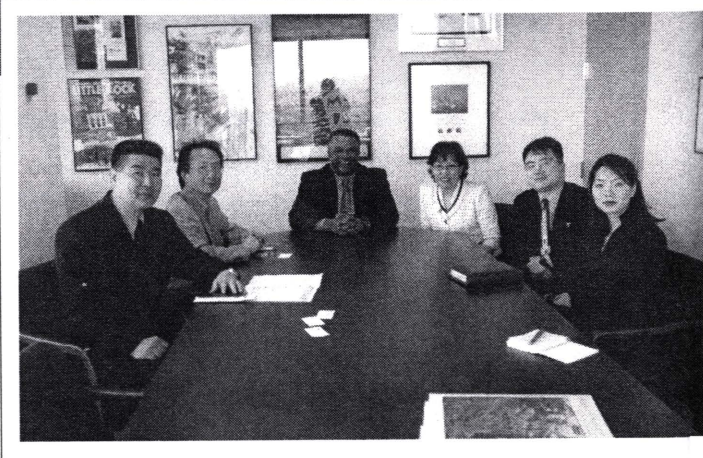
한인들과 정기적 회동 갖기로

시애틀 한인회장 페더럴웨이시 방문



부임후 미구 각 기관단체장을 순회중인 서영민 새애틀 한인회장이 웨더럴웨이시를 방문한 이들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5일 오후 4시 시청을 방문한 서영민 회장, 손동학 이사장등 일행은 딘 맥콜건 시장과 한시간에 걸친 면담을 갖고 시에서 주최하는 시정보고회등에 대한 설문을 청취했다. (5월 8일자 중앙일보)

한인회, 쇼어라인시등 방문
머킬티오, 애드몬즈등 시장과 면담



부임후 미구 각 기관단체장을 순회중인 시애틀 한인회장단이 기관단체장과 의견교환시간을 지속하고있다. 지난 주 서영민 회장등 임원-

진 일행은 쇼어라인시를 비롯, 머킬티오, 애드몬즈 지역 시장을 방문 면담시간을 가졌다. 면담에서는 한인사회와 관련된 주택, 범죄예방등 갖가지 의견이 교환됐다. (5월 5일자 중앙일보)
한인 공무원 채용 넓혀달라
스노호미시 카운티에 건의
사회장일행은 지난달 29일 스노호미시 카운-

티의 애런 라이던 행정관을 방문, 한인 2세들에게 인턴쉽 기회를 제공해 줄 것과 카운티 정부와 각급 공무원직에 진출하려는 한인들의 등용문을 넓혀달라고 건의했다.

한인 양로원 설립등 논의
심스킹 카운티 행정관 방문
시애틀 한인회 회장등 한인회 임원진들이 킹 카운티 군수를 예방, 만남 시간을 가졌다. 아널 한인사회 관심사인 한인 양로원 개발, 킹 카운티의 한인사회 지원문제를 논의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연락과 이해 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만남을 갖기로 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희정 부동산

주택전문/ 토지/ 건물

선택함과 동시에 완벽한 만족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직통) 206-679-8328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한인사회 목소리 힘냈다.

스노호미시 주택국, 에버렛 모텔 '토지수용권' 포기
김씨 부부 "한인회" 등에 감사, 한인사회 참여할 터

스노호미시 카운티 정부의 강제수용 압박에 시달려온 한인 모텔업주의 고민이 한인사회가 낸 한 목소리 덕분에 이외로 쉽게 해결됐다.

당구와 맞서 어려운 싸움을 벌였던 '에버렛인' 소유주 김 종길씨는 한인사회가 발벗고 도와주면서 꼬였던 문제의 실타래가 풀렸을 뿐 아니라 한인사회의 귀중함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의 답답한 사정을 먼저 알고 한인사회의 공론을 모아 정의를 찾아야 된다고 힘을 실어준 신호범 주 상원의원, 장태수 쇼어라인 시의원, 서영민 시애틀 한인회장, 그리고 여러 한인단체들의 노력과 관심이 아니었다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고마워했다.

(중략)
김씨 부부는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시애틀에 정착, 주변에 도움을 청할만한 한인도 없었-



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인회비 납부는 물론 한인사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그동안 관심과 격려를 보내준 한인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1월 22일자 한구일보)



단합과 화합의 장

실력도 매너도 모두 만점

한인회장배 대회 성황, 참가팀들 매경기 점전

최근 월드컵 시애틀 대회로 축구 붐을 타고 있는 워싱턴 주 한인 축구팀들의 전력도 상향 평준화되었다.

워싱턴 주 축구협회(회장 장현식) 주최로 페더럴웨이 사할리 중학교 구장에서 지난 5월 15일 열린 제 23회 시애틀 한인회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한 7개팀중 모두 거의 매경기 한 점 차 내의 점전을 펼쳐 보는 이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선수들은 욕설과 거친 장면을 올해만큼은 없애달라는 회장의 개막사에 부응하듯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세우는 등 깨끗한 매너로 대회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려 승패와 상관없이 모두 승-

자가 된 대회였다는 것이 대회를 지켜본 한인회 관계자의 평가였다.

서영민 시애틀 한인회장은 '예상보다 축구인들의 저변이 넓어 체육대회를 통한 한인사회 융화라는 대 전제를 가시화 시켜준 대회였다' 며 지원금(2,000달러)가 아깝지 않다고 덧붙혔다.

5월 18일자 한구일보

STATE FARM INSURANCE 스테이트 팜 보험 State Farm Insurance
Home offices Bloomington Illinois

자동차 보험
집, 아파트, 콘도 보험
사업체 보험
라이프(생명) 보험
은퇴 연금 (IRA)
장제 보험

“늘 편안한 이웃”

Tel. 4251776-8515
Fax. 4251776-8936

22315 Highway 99, Suite J, Edmonds, WA 98026

아·카·사·카 매운탕 / 회덮밥 / 장어덮밥 / 즉석구이 / 샤브샤브

☞ 다다미룸
☞ 스시바
☞ 한식·일식
☞ 대소 연회석 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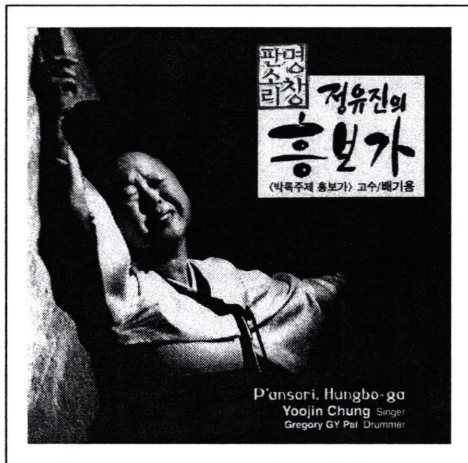
(253) 946-2341, 946-3858
31246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영업시간
일 4:00-11:00
토 12:00-11:00
월~금 11:00-11:00

우리문화의 세계화 모색

세계문화유산 판소리

정유진 명창 초청 시애틀 공연




시애틀 UW에서 활동했던 판소리 명창 정유진씨가 시애틀에서 한국 전통의 명음을 들려준다.

27일 오후 린우드 일식당 추피쉬에서 열린 언론과의 회견에는 후원을 맡은 시애틀 한인회 서영민 회장과 윤봉열 주회장등 임원진이 자리를 함께 했다.

미구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서울대 대학원과 각 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정유진씨는 전주 MBC가 창사기념으로 기획한 2부작 명창소개에서 해외에서 활동 중인 세계적 명성의 명창소개 녹화 대상으로 섭외를 받고 MBC 전주 제작팀과 함께 연주회 준비를 하고 있다.


파리무대에서 판소리 연주회를 열고 프랑스에 한국 고유의 음을 들려줘 화제를 모았던 정유진씨는 '판소리의 세계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지만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판소리의 중요성을 미구사회에 널리 알리는 뜻' 을 강조, 이날 연주회후 참석자들과 의견교환 시간도 갖게 될 것이라 말했다.

판소리 연구가이기도 한 최동현 교수는 미구의 판소리 불모지에서 30년 이상 지키고 있는 정씨의 고집을 설명하면서 유네스코에서 한국 판소리가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받았다며 인류 구전의 무형유산의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1월 29일자 중앙일보



헨리 설
PRESIDENT/ CEO

주택융자, 재융자, 각종 EQUITY LOAN, 사업체 융자, 건축융자, SBA LOAN
융자는 역시 오랜경험과 노하우의 결정체입니다.
NO DOWN, NO INCOME, 2차, 3차 융자



박경희
BROKER

에민융자

MORTGAGE UNLIMITED, INC.

22727 HWY99 #206 / 207, EDMONDS, WA 98026
와싱턴주 지역: 1-888-576-1234, 오레곤주 지역: 1-888-671-1234

경험있는 LOAN OFFICER 모집

한인사회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

'Youth Talks' 개최의 의의 및 의미

[편집자 주 : 이 글은 한인회가 지난 8월 28일 UW에서 개최한 학술대회를 널리 알리고 많은 동포들의 참석을 권유하기 위해 발표문의 일부입니다. 우리 동포 사회의 미래가 우리의 자녀에게 달려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자 발췌 게재합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한인 전문인 협회, 한인 생활 상담소, 그리고 워싱턴 대학교의 한인학생회와 뜻을 같이하여 오는 8월 28일 'Youth Talks' 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한인사회는 현재 이민 1세대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한인사회의 중심축이 2세대 및 3세대로 이전될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즉 각종 한인교회, 사회단체 및 사업체를 망라하는 한인사회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의 한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확립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주목하여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에서는 작년에 미주 이민 100주년을 맞이하여 "미주 한인의 정체성과 현실과 미래" 라는 주제로 하여 한인 2세대 및 이후 세대들이 한인 정체성 확립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학술대회에서는 한인사회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한인 청소년들의 친구와 이성문제,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 문제를 청소년 대표 15명, 대학생 대표 6명, 부모님 대표 9명이 모여서 진지하고 격의 없이 토론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고민과 가슴속에 깊숙히 담겨져 있는 생각들이 여과없이 흘러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솔직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한인사회내의 구성원들 (부모-자식간에, 세대간에)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화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금년에 본 학술대회가 논의하고자 하는 이러한 주제들은 한인 2세대 개개인의 자기 실현과 한인 공동체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사안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없이는 본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의의 또한 반감된다 하겠습니다.

본 대회의 의의와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서영민
학술대회 실행 위원장 임영숙

배달겨레의 참 모습을 보여 주자

황 태근
(시애틀 통합 노인회 고문)

많은 사람들이 부를 선호하고 또한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부를 추구하는 진정한 동기가 없을 경우 인성을 잃어가며 양심을 버려서라도 그것을 성취하려 한다. 행복은 이웃 사람을 지배하는 데 있지 않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보다 많이 갖고 싶은 욕심에 있는 것도 아니다. 재물을 소유하거나 자기 아랫사람들을 꺾어 누르는데에 있지 않다. 부가 팽배할수록 물질주의가 더욱 심화될 수록 정신적 위기감은 더해가고 가치관은 물질에 지배당하게 될 것이다.

‘큰 강은 흐르며 수천 갈래 수로로 물을 보내 들을 비옥하게 하듯이 그대의 재산이 여러 경로로 불우한 이들의 집으로 흘러가 혜택을 받게 하라. 샘은 물을 흘러보낼 수록 물이 좋아진다. 안쓰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돈도 간직만 하고 있으면 가치가 없다. 이 손 저 손으로 돌아 다니고 옮겨 다니는 사이에 공동체를 돕고 양도 늘어나는 것이다’ 는 말을 되새겨 보직하다.

일반적으로 부유한 자들에게는 친절하지만 불우한 사람들에게는 냉정한 경향이 있다. 모짜르트의 음악에 도취되어 눈물을 흘릴 줄 알지만 옆집의 갓난아이가 배고파 우는 소리에 무관심하다. 낮이 골고루 밝고 해가 빛나며 비는 촉촉히 내리고 바람은 순조롭게 불며 잠든 이들이 하나같이 단잠을 자고 달빛과 별빛-

이 누구에게나 영롱하게 비취이는 공동체가 진정 아쉽다.

우리는 불우한 동포들의 괴로움에 눈을 돌려야 하고 이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때를 못 만나 운이 나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도우려 나서는 따뜻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 고통속에서도 깨끗한 자세로 정직하고 인간답게 살려는 동포에게 베풀어 줄 때 같은 겨레로서의 인간 관계는 깊어져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던 간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경직되고 획일화되며 부자연스러움과 강압적인 측면만 더욱 깊어져서 나 자신 뿐 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고통만 주게 될 것이다. 항상 고통받는 동포들의 삶을 기억했으면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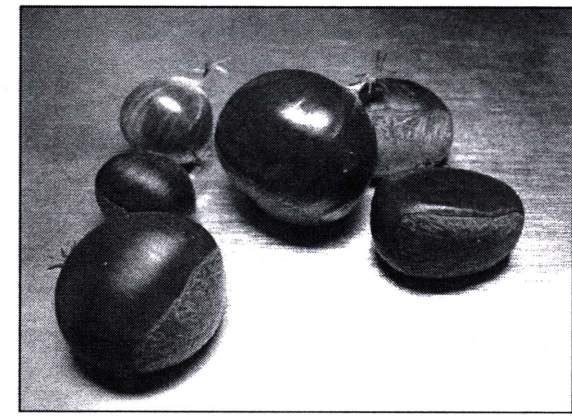
원래 우리 겨레는 유달리 따스하고 포근한 정이 많고 인간미가 넘치는 민족이다. 남의 어려움과 괴로움 그리고 아픔을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않는다. 멀리 고구을 떠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동포에게 서로 돕는 아름다운 배달민족의 참 모습을 미구 사회에 보여주자.

‘불행은 당해도 두 사람이 슬퍼하면 그만큼 슬픔이 덜해진다. Two in distress makes sorrow less.’ 는 격언을 곱씹어 본다.

관심

윤 봉열 (시애틀 한인회 부회장)

낙엽이 온길을 덮은 주말 오후, 웬지 이번 주말엔 사랑스런 가족과 오붓하게 녹두부침을 해 먹고 싶어 한구 식품점에 들렀다. 익숙한 솜씨로 이것 저것 필요한 재료를 담아 계산대에 섰는데 ‘햇밤’ 이라는 팻말아래 무척이나 먹음직스런 밤이 눈에 띄었다. 아주 좋은 햇밤이라는 상냥한 여종업원의 적극적인 추천에 힘입어 두봉지를 사들고 오면서 와이프에게 오 늘은 모처럼 좋은 소리를 들겠다 싶어 의기양양하게 집에 돌아왔다.



저녁 식사후 온가족이 둘러앉아 하루를 지낸 이야기들을 나누며 밤을 까먹기 시작했다. 껍질을 벗기고 속껍질을 조심조심 벗겼는데 으악! 썩은 밤이었다. 이럴 수도있지 어쩌다가... 다른 놈을 집어들고 어렵게 까보니 썩은 것, 곰팡이 난 것, 거의 멸정해 보였는데 씹었더니 아닌 것 등등.

밤의 껍질을 보서는 속이 어떤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속껍질까지 다 벗겨 보아야 그 속이 성한 지 썩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어쩌다 멸정한 놈을 발견하면 온 가족의 시선을 무시한 채 밤이 내입으로 쏘옥 들어가 버리고 만다. 그 맛에 또 다른 성한 놈을 찾으려 시도하게 되고 우리 가족은 이날 저녁 반 이상 썩은 밤을 까면서 투덜투덜, 굵시렁 굵시렁, 한구 식품점에서 시작해서 여러가지 불평들을 늘어놓게 되었다. 다시는 그식품점에 안갈 듯이 씹씩거렸-

으나 마음을 가라 앉히고 생각해 보니 뒤에서 욕만 하고 말면 안될 것 같았다. 다음번 그 식품점에 들렀을 때 매니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해주었더니 깜짝 놀라며 다음에는 조심하겠다고 겸손히 받아 들이는 것이었다.

작은 경험이었지만 뒤에서 굵시렁거리기만 하던 것 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고 미안하다고 하며 상대방이 잘 받아주니까 나도 기쁘고 잘했다는 생각에 마음 뿌듯했다.

이민 1세로 미구에 와서 살면서 가지게 되는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좋은 말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고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여 고치게 되면 조금씩 점점 발전하는 이민자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한인회에 몸담은지 어느새 1년이 지나갔다. 그동안 즐거웠던 일, 보람되었던 일, 아쉬웠던 일, 힘들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가장 힘들었던 때는 한인들의 한인회에 대한 무관심과 잘못을 지적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기보다 뒤에서 수근대며 불평만 할 때였다. 한인회는 미구에 이민와서 살고 있는 모든 한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이익을 옹호하며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혹 실수가 있었다면 따뜻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여 시정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 모두 같이 잘되고 같이 발전해 나가게 될 것을 믿는다. 그러면 “한인회비도 잘 냅시다!”



2004년 회비및 찬조금 납부현황

1월	서영민 3,000 손기남 500 윤봉열 500 손동학 1,000 임영숙 500 이영조 300 이재균 100 2003년 이월금 503.99 홍승주 300 곽종세 100 강동언 100 한원섭 100 오계희 100 신호범 300 장현식 200 윤부원 300 김종길 100 타코마 한인회 200 임영숙 100 Yoo young Gih 200 홍천해 200 세탁협회 이희갑 200 백태호 100 이정래 50 상공회의소 김승애 100 이익환 200 이덕재 20 김정태 20 김수현 20 김형길 30 오계희 50 소영토리나 20 판소리 100 최명섭 20 손기남 1,000	황규호 20 정정이 100 월계 10,773.99	윤태근 300 김홍중 300 미술협회 50 강병철 20 고성권 300 우체국(김준철) 100 서진원 300 예정현 300 누계 17,307.48	김운봉 20 이문항 20 차성애 20 김영순 20 고부희 20 장부용 20 이민우 20 박자익 50 김규길 20 김태산 20 안금석 20 박돌 20 박은영 20 이봉수 20 오복록 50 김생려 20 장길수 20 고군자 20 정택상 20 이풍훈 20 강복부 20 고숙희 20 황태근 20 최재화 20 이무열 20 안창렬 20 송병태 20 김홍숙 20 박병규 20 박순갑 20 조정현 20 곽훈 20 손동준 300 김두한 20
2월	조재환 20 상공회의소 50 축구협회 50 민학군 200 킹카운티 200 신동석 100 김준철 100 Jennifon Lee 50 이동립 100 김준철 100 월계 970 누계 11,743.99	4월	이병구 300 이상현 300 김준철 100 이익환 100 김수영 50 김분이 20 박은연 20 원장환 20 김진면 20 김인자 20 김진희 100 이오감 20 박우남 20 안현준 20 신강우 20 서윤석 20 윤봉열 500 박창복 20 김애련 20 이정순 20 임영길 20 하정학 300 노도술 20 강삼봉 20 이종소 20	
3월	강희열 100 오준걸 100 정재원 200 윤광남 100 이경호 20 이필영 300 임광희 300 이수잔 300 김종완 300 이현숙 220 이상국 300 미주총련 1,000 이현기 50 VAN WILD 100 Yellow pages Inc. 3.49 김수영 500			

5월	H.J. LAW, LTD 750 DENALI Foundation 2000 정상균 20 조동권 300 사계절 200 사계절 100 Tae Kang Kim 500 Bong S Suh 100 Jae Park 20 Stephen Kahng 20 An Cho 20 Ju Wan Lee 20 Shin Han 20 Jung G Bae 20 Won Hee Park 20 윤계수 20 윤윤하 10 정혜영 20 이이숙 20 박지현 20 민명기 200 하나비 300 아카사카 500 SHIN HO USA INC 300 KIM & KIM CPAS. INC 300 Gold Mine Mortgage INC 20 Jn Yong Kim 100 Prowest Development LLC 500 S,P Air Service INC 400 Gold Mine Mortgage INC 300 Sohn Real Estate 손기남 500 Mavin Foundation 500	월계 8,320 누계 32,576.48	채형준 300 롯데 선물센터 200 함명호 100 김기현 300 Austin Texas 38.4 New Life Fitness 1,200 월계 5,038.40 누계 42,864.88	10월	강동언 100 VAN WILD 100 홍승주 500 권정 100 김석민 200 장태수 200 유철웅 100 신광수 300 채준 200 박태호 100 박영민 200 김준배 200 월계 2,300 누계 52,499.99
6월	Kyung H Park 300 장용석 100 VAN WILD 100 이상국 300 방석문 300 P.I BANK 2,000 강승혜 20 김준배 489 문사나 30 장진식 200 월계 3,839 누계 32,576.48		9월	Arctic Storm Inc 500 Casa Marine Inc 100 Center Bank 500 Eagon USA Corp 100 Golden Tech Int'l 200 Hanjin Shipping 300 Marine Star Inc 500 Moon Star Corp 100 Samho America 500 연세대 동문회 500 장용석 500 홍준걸 100 Lee Joshua Jung 100 이명운 100 박해주 1,000 류재흥 200 Yae, John J 200 Young Occean Inc 200 총영사관 500 무명(상공엑스포) 20 Hyundai Shipping 500 박건홍 200 곽종세 200 쇼어라인 시 165 월계 7,335 누계 50,199.88	
7월	조선척추신경 200 구현유 50 손동학 100 벨뷰 축구회 100 조슈아 축구회 100 페더럴웨이 축구회 100 켄트 축구회 100 김승애 50 상공회의소 100 워싱턴 축구회 200 여성부동산 200 윤광남 300 강석동 200 김순아 300 윤광남 200 홍승주 500 VAN WILD 100			11월	지은정 200 윤학덕 200 김기현 500 신호 USA 500 오승근 100 윤봉열 500 월계 2,000 누계 54,499.99




해남 갈비·오징어
206. 367. 7843
 15001 Aurora Ave. N. Shoreline. WA 98133 [구 롯데백화점 자리]

Sun - Thurs
 11:00am-11:30pm
 Fri - Sat
 11:00am-1:30am

여·행·의·대·명·사

Sharp Travel **샤프여행사**



적은비용 큰 만족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드립니다.

- * 국내외 항공권
- * 모든 관광업무
- * 국내선 특별할인요금 판매

800-464-5617
 720 Olive Way #106 • Seattle, WA 98101



줄리 사진관
Julie's Studio
 행복을 아름답게 담아 드리겠습니다...

결혼, 가족, 돌사진
 출장문의 환영

시애틀 (206) 363-3985
 타코마 (253) 576-8265
 10732 5th Ave. NE
 Seattle, WA 98125



아리랑의 밤을 축하드리며
 시애틀 한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팔도식품

비버튼 (503)641-3313 타코마 (253) 581-7800 시애틀 (425) 742-2237 웨더럴웨이 (253) 941-8282




TWO FISH
 JAPANESE RESTAURANT

T. 425-741-8047
 14626 Hwy 99 Lynnwood, WA 98037

OPEN HOUR
 월요일 ~ 목요일 : 오전 11시 ~ 밤 12시 | 금요일 ~ 토요일 : 오전 11시 ~ 새벽 2시 | 일요일 : 오후 1시 ~ 밤 12시



JNB AD
 INTERNATIONAL

광고주와 함께하는 성공
 이제는 TV영상광고입니다!

미래를 위한 탁월한 선택 JNB-AD와 상의하십시오.
 TV영상광고제작 문의 TEL 206)718-7672

전통 한식 전문식당

가원



바베큐 레이블 완비
가마솥 설렁탕

(425)787-6484

15004 Hwy 99 #A, Lynnwood, WA 98037



류창명 종합보험

- 24HOURS A DAY SERVICE
- 친구는 옛친구 보험은 25년 경력의 류창명

- 주택
- 자동차
- 생명
- LONG-TERM CARE
- 사업체
- DISABILITY
- MUTUAL FUND
- CD'S



(206)362-8828(사무실) (206)533-1251(집)
15021 Aurora Ave. N. Shoreline, WA


866-248-9266 tel
3625 132 Ave. SE #100 Bellevue, WA 98006

CityCome Wireless

마이 라이프는 고객이 믿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진 제품을 고객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상의 자연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진
자연 친화적 제품을 고객에게 공급
해드리겠다는 저희의 기업철학은
고객 한분 한분의 건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을 생각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귀하의 건강을 증진
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MyLife®
Tel: (253) 839-4341 • Fax: (253) 529-3093
1727 S. 316th St. #B-102 • Federal Way, WA 98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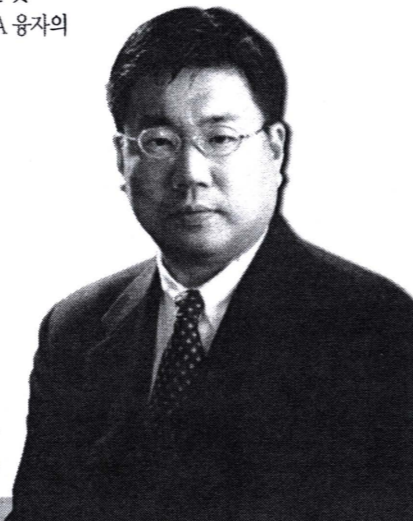
Member FDIC www.centerbank.com



중앙은행의 SBA용자팀을 만나면 사업자금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중앙은행 시애틀 LPO를 찾아 주십시오. 사업체는 물론 건물 및 장비 구입자금 등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중앙은행 SBA 용자의 혜택을 이제 포틀랜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LPO **425.775.5555**
포틀랜드 지역 **503.226.6677**




시애틀 LPO Manager
강 봉수

중앙은행
편리한 서비스, 친절한 사람들-

Shinho Paper

종이로 꿈꾸는 세상



ShinHo USA Inc.
tel 206 439-1861
16300 Christian Rd. #205
Seattle, WA 98188

CEA **PROPERTIES, INC.** www.cfaproperties.com
INVESTMENT & MANAGEMENT
COMMERCIAL & INVESTMENT REAL ESTATE SALES

항상 고객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커머셜
주 택**

Kinam Sohn, CPA
Broker

지난 25년간 부동산 투자, 세금관계에 고객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부동산 전반에 관한 완벽한 팀 구성으로 고객 여러분을 보다 편리하고 편안하게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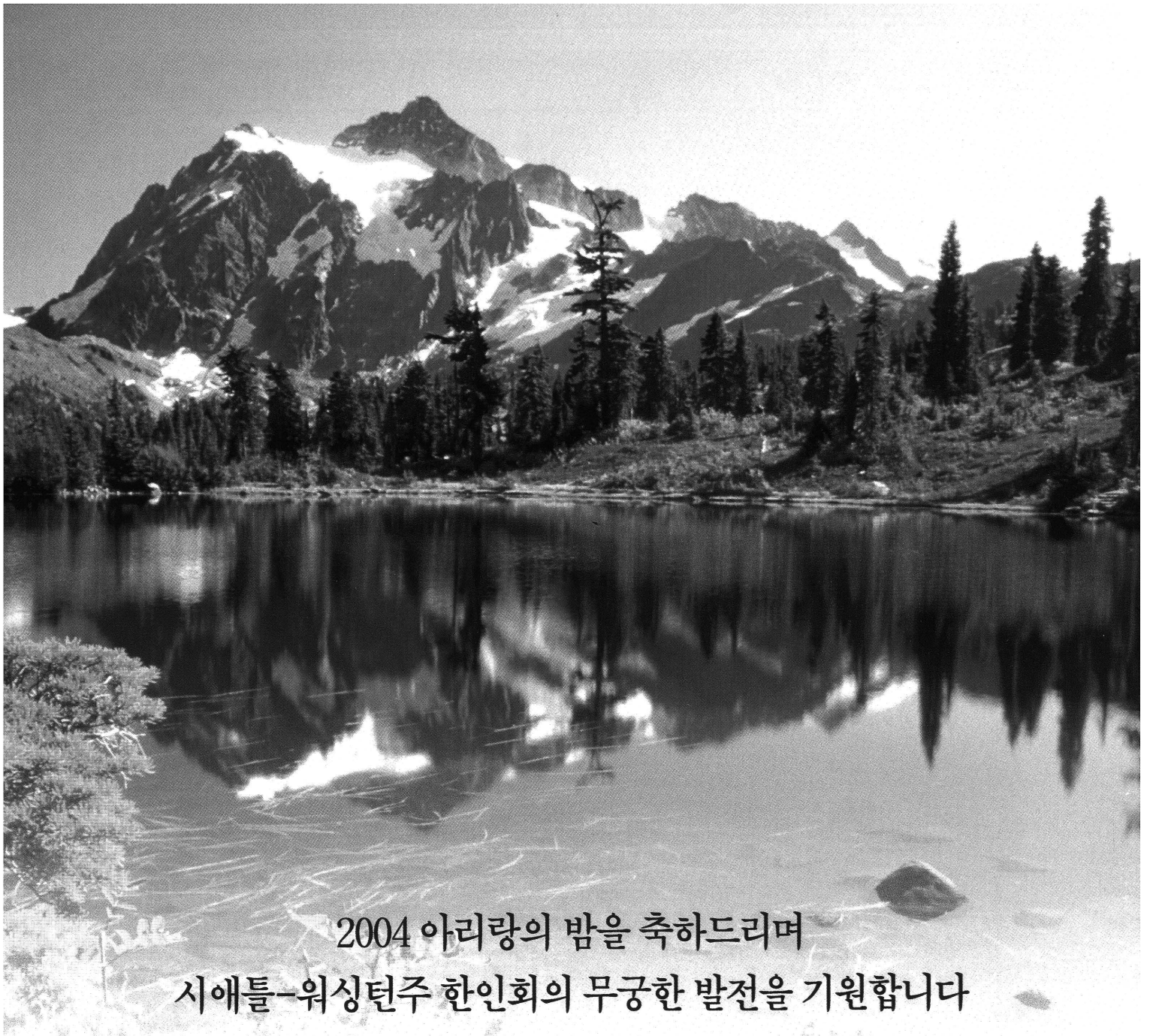
주 택
커머셜
투자 전문
아파트, 콘도
1031 Exchange

용자팀
아주 좋은 조건으로
완벽한 용자 서비스를
노력합니다.

투자팀
투자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재산증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손기남
Broker
206-851-7646
(206-851-SOHN)
206-855-0990(FAX)
E-mail : kinam@cfaproperties.com

투자와 주택 구입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항상 연락 주세요. (206)851-7646



2004 아리랑의 밤을 축하드리며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Univera, Inc.

(주) 남양알로에 워싱턴주 현지법인
2660 Willamette Drive NE
Lacey, WA 98516
Tel) 360-486-8300